

어촌·어항의 정보 기반 정비

니이야마 신지
수산청 방재어촌과 환경 정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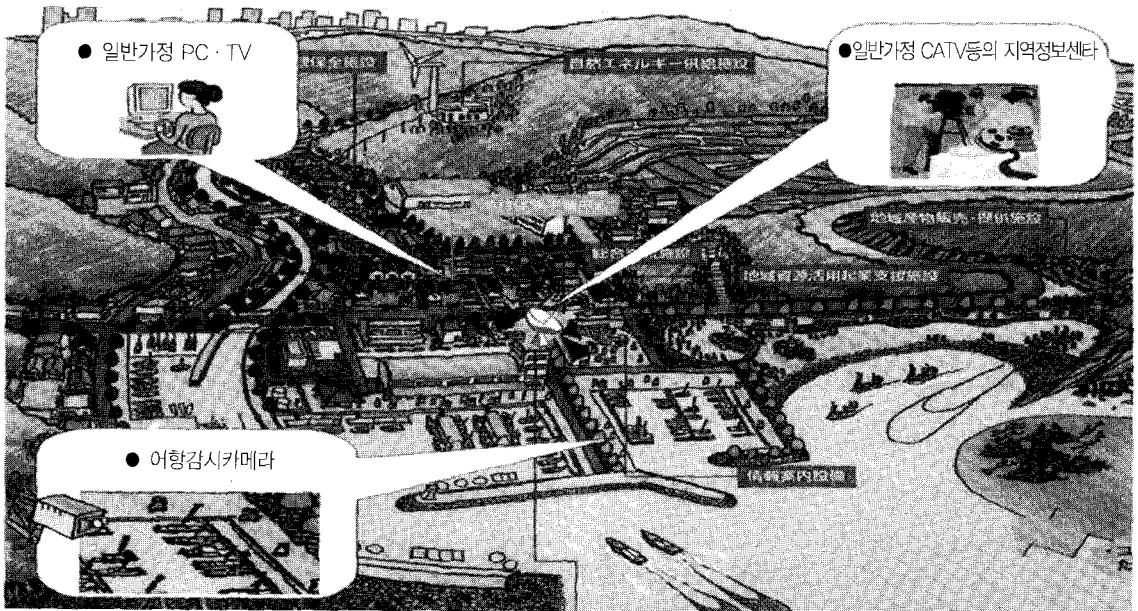
어촌·어항에 있어서 정보
기반의 정비에 대해서는
「e-Japan 전략」의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
외에도 신어촌커뮤니티기반정비
사업이나 어업경영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와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어촌 어항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1. 머리말

일본은 2005년을 목표로 한 세계 최첨단의 IT국가 실현을 지향하는 「e-Japan 전략」, 그 후 「e-Japan 전략 II」가 책정되어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I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지식 창출형 사회 실현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IT 기반 정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같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간 혹은 업종 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나 정보기술의 이용 또는 활용 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다.

때문에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어업이나 농산어촌의 정보화에 관한 하드·소프트의 각종 시책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농산어촌 정보화 마을 만들기의 기본방침으로서 「e-마을 만들기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IT를 활용한 효율적인 농림어업의 전개나 농산어촌의 생



어촌 어항의 정보화

환경 향상, 도시와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에 있어서 정보 기반의 정비에 대해서는 「e-Japan 전략」의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 외에도 신어촌커뮤니티기반정비사업이나 어업경영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와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어촌 어항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 어촌·어항에 있어서의 정보 기반 정비

지금까지 도시지역에서는 민간을 바탕으로 CATV나 ADSL 정비가 이루어져 왔지만, 어촌·어항은 정보화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청에서는 2000년 어촌·어항 활성화대책사업, 2002년 신어촌커뮤니티기반정비사업도 정보기반시설을 정비메뉴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e-마을 만들기 계획」 추진의 기대효과

- 효율적인 농림어업의 전개
 - IT를 활용해 생산지와 소비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며 안정된 농림 어업 경영의 확립 촉진
- 생활환경의 향상 등에 의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 인구부족·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산어촌에서 IT에 의한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촉진 등으로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 촉진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촉진
 - 공생·대류 포털 사이트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 등으로 농산어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을 쌍방향으로 왕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

또, 어업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어업 경영 구조개선사업(이른바 연안사업-沿構事業)에도 어업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정보화하여 활용하고 있어 그 방식을 설명한다.

① 어항 고도이용 촉진 대책사업

○ 사업의 개요

근래 어항에 대한 요구는 수산업이나 국민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여 어선의 안전한 계류, 작업의 효율화는 물론 어항 수역 등을 활용한 만들어 기르는 어업의 진흥, 해양 레크리에이션이나 도·어교류의 장소로서의 이용 등 어항 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치밀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어촌·어항의 정보 기반 시설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고 어업 생산·경영, 생활의 개선, 도시와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보의 고도활용에 따른 지원 및 고도어항이용으로 어업의 진흥과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사업 대상 지역 : 어항 구역 내와 그 배후 취락
- 사업 실시 주체 : 지방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
- 보조율 : 1/3
- 사업 실시 기간 : 2006년도까지

② 신어촌 커뮤니티 기반 정비 사업

○ 사업의 개요

농산어촌에서는 생활환경이나 정보통신기반 등의 낙후가 인구감소, 고령화의 진행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취락의 존속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유, 안락함을 추구해 농산어촌으로 U턴을 희망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생·

대류하는 활력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물건·정보」가 순환하는 공통사회기반을 갖춘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정보기반시설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여 도시와 어촌의 쌍방향의 정보 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수산업의 IT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업 실시 지역 : 어항의 배후 취락, 어업 센서스(census)의 대상이 되는 어업 취락
- 사업 실시 주체 : 지방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 공사 등
- 보조율 : 1/3
- 사업 실시 기간 : 2006년도까지

정보 기반 시설 실시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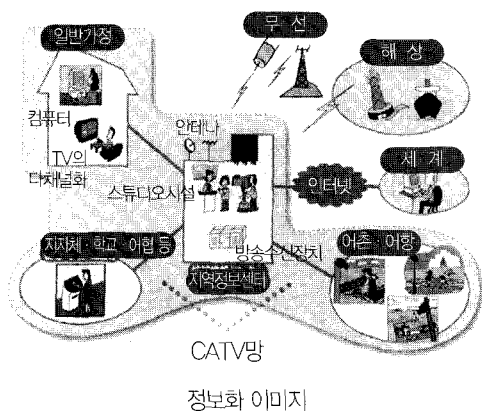
년 도	도도부현	사업주체	사업명
2001~2003	홋카이도(北海道)	토마리무라(苫小牧村)	활성화
2002	코우치현(高知県)	시가시(土佐市)	활성화
1999~2001	코우치현	스자키시(須崎)	활성화
2003	에히메현(愛媛県)	우오시마무라(魚島村)	신어촌
2000~2003	오이타현(大分県)	히메시마무라(姫島村)	활성화
2003~2004	오이타현	카미우라초(上浦町)	활성화

※ 활성화 : 어항어촌 활성화대책사업(현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
신어촌 : 신어촌 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

③ 보조의 범위

어항고도이용 촉진대책사업 및 신어촌커뮤니티기반 정비사업에서는 정보기반시설로 다음과 같은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 CATV국 등의 지역정보센터
- 지역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 집중 제어장치



- 광섬유 케이블 등의 전송시설(개인 택지내로의 배선은 대상 제외)
- 어업관계기관 등 공적기관의 정보 수·발신 장치 및 다른 정보기반으로의 접속에 필요한 시설
-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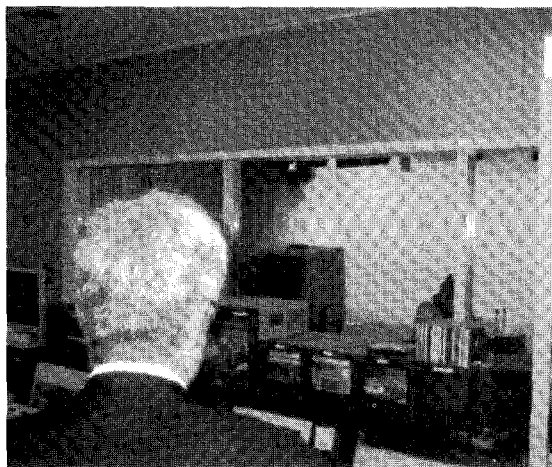
④ 어업경영 구조 개선사업

○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수산기본법 (2001년도 법률 제89호)의 기본이념을 근거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①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자원관리의 강화, ②어업경영 개선과 담당자의 육성, ③유통·가공·소비 대책, ④어업지역 진흥의 4개의 과제에 입각해서 연안어업 [무동력어선 혹은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운반어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혹은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수산 동식물 채포사업, 어구를 정치(定置)해 실시하는 수산 동물 채포사업 또는 수산 동식물 양식사업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한 어업에서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사업에서 정보관련시설로서 연안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자원 배양의 추진, 자원 및 어장의 적정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수온·염분농도·용존산소량·조업장소 등의 어항정보, 가격 등의 시황정보, 기상정보 등의 어업관계정보를 송수신 하는 관측장치나 서버 등을 「어장·양식장 환경관리시설」, 「수산정보 고도이용시설」로서 정비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업이나 출하 체제의 확보 등에 따라 경비 삭감 등을 피하여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어항 감시 시스템으로 지택에서 어선의 상황을 파악



스튜디오에서 지역 정보를 발신

2000년도 이후의 실시 개소

연 도	도 도 부 현	사 업 주 체	정 보 내 용
2000	아이치현	아이치현	물고기 및 바다상황·기상 정보
2000	코우치현	코우치현	물고기 및 바다상황·시황·기상 정보
2001	코우치현	스자키시	물고기 및 바다상황정보
2001	아오모리현	下前어협	어업 정보
2001	쿄토부	쿄토부	시황정보등
2001	홋카이도	사로마호 양식어협	물고기 및 바다상황정보
2001	이와테현	이와테현	물고기 및 바다상황정보·시황정보
2001	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	물고기 및 바다상황정보·시황정보
2002	후쿠이현	후쿠이현 무선어업협회	어업·기상·물고기 및 바다상황정보
2002	미야자키현	아오시마 어협	물고기 및 바다상황정보·시황정보

※ 2003년도는 실적 없음.

- 사업 실시 주체 : 지방공공단체,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 보조율 : 1/2
- 사업 실시 기간 : 2006년도까지

또한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과 신어촌 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에서는 그 보조 대상은 거의 같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양자를 하나로 하여 어항의 정보화, 어촌의 정보화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일부 제도가 다르지만 사업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게다가 수산청의 비공공보조사업의 대부분이 2005년도부터 교부금화 될 예정이다. 지역에서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실시한다고 하는 형태로 제도가 변경되지만 내용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답습할 것이다.

3. 맺음말

어촌의 생활환경이나 정보통신화는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뒤쳐져 있는 상태로 이것이 인구감소나 고령화를 진행시켜 어촌의 활력 저하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촌은 어업활동의 거점이며 어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장소이며, 식생활 문화·전통 행사의 계승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어촌은 생활환경의 개선이나 정보화에 의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평소 경험할 수 없던 먹거리, 볼거리 등의 매력적인 정보를 홍보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보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많은 어항이나 어촌에서 어업이 진흥되고 어촌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